

# 신천지 명단, 추정보다 3만 적어...추수꾼·교육생도 포함?

### 기독교계 21만명 명단에 의혹...잠정신자도 10만 명 예측

### 스파이 일명 '추수꾼' 포함 불명확...다단계 교육생도 누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37일만인 26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사망자도 11명이나 나왔다. 감염병 급격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천지(신천지에수교 증거장막성전)는 진동 끝에 신도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기독교계에서는 완전한 명단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신천지 측은 25일 저녁 신도 21만2000여명의 명단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출했다. 이는 기독교계 추정 신도 24만명에 비해 3만명가량 적은 숫자다. 해당 명단에 이름 외 연락처, 주소 등 어느 범위까지 포함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신천지의 정부 협조는 자신들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만희 총회장 명의 공지와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첫 입장발표에서 이같은 지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총회장의 특별편지에는 "정부에서 성도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방안을 마련하는 전제하에 (협조를) 진행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때문에 경찰과 보건당국이 각 신도의 정보를 토대로 코로나19 감염경로와 동선, 밀접 접촉자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정보까지 명단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특히 신천지 측이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 명단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생 명단 미제출이 수사의 '미싱링크'(Missing Link, 잃어버린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천지가 지난해 유튜브 영상 '진리의 성을 아름다운 신천지 예수교회를 소개합니다'를 통해 공개한 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육생은 6개월의 성경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수료시험을 통과해야 정식 신도가 된다.

이 영상에 따르면 교육생들은 신림동 고시촌이나 노량진 공무원 유치 및 보안방안을 마련하는 전제하에 (협조를) 진행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정식 신도와 교육생의 밀접한 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정윤석 한국교회 이단정보 리소스센터장은 "(코로나19에 노출된) 신천지 신도들이 위장교회, 센터, 문화센터에서 교육생, 일반인과 접촉하게 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강립 전도사(구리이단상담소 상담사)에 따르면 본격적인 6개월 과정 센터교육 전 '미혹'과 '복음방' 수준의 교육도 있다. 이 단계에서는 예비교육생들이 신천지 교육을 받았는지도 인지하지 못한다. 때문에 이들의 숫자는 정식 교육생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신현옥 신천지 문제 전문상담소 목사도 "교육생들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알려진 24만여명 외에도 '잠정적 신천지 신도'가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명단에는 교육생 외에도 교단 내에서 '특수임무' 인 기존 기독교 교회의 침투와 신도 포섭을 맡은 '추수꾼'의 포함여부도 불투명하다.

추수꾼은 신천지의 교회에 다니면서 청년회장, 구역장 등 리더를 도맡으면서 해당교회 신도를 신천지로 인도하는 역할로 일종의 스파이처럼 활동한다. 고위직으로 오를 수록 포섭이 쉽기 때문에 일부 교회에서는 정체를 숨긴 채 부목사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 교회 전체를 신천지화하는 이른바 '산 옮기기'도 이들의 담당이다.

때문에 이들의 정체가 정부 등에 드러날 경우 기존 교계나 시민사회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들이 등록신도 24만여명 안에 포함되는지는 파악된 바 없다. 신천지 측 역시 이런 질문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나 (23일 유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석과 관련 광주 신도 등 광주지역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3일 오전 광주 북구 신천지 베드로지성전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이 교회 앞을 지나고 있다.

튜브를 통해 발표한 입장 외에) 추가로 (명단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은 없다"며 "추가 임장이 있으면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신 목사는 "공권력이라도 동원해 모든 (신천지 신도) 명단을 공개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제언했다.

신천지가 제출하겠다고 밝힌 명단은 서울야보고, 부산야보고, 베드로, 요한, 도마 등 전국을 12개로 나눈 구획에 소속된 지파(분파)에 속한 회원의 정보다. 신천지 측은 "정보 유출로 신도들이 곤란한 상황을 겪은 바 있어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약속 하에 명단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학사모도 꽃다발도 없었다...달랑 '학위증서'만



26일 오전 광주 조선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한 졸업생이 학위증서를 수령하고 있다.



26일 오전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한 상인이 꽃다발을 팔고 있다

코로나19가 바뀌 놓은 대학교 졸업식 풍경 수여식·학위복 대어 전면 취소...상인들 '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대학교 졸업식 풍경도 크게 달라졌다.

26일 광주시 소재한 조선대학교 공과대학에는 대학 졸업을 확인해주는 '학위증서'를 수령하기 위한 졸업생들이 하나둘 모여 들

었다. 혼자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한 졸업생은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강의실로 향했다. 약속 시간이 조금 넘어 친구들이 도착하자 졸업생들은 학과사무실을 찾았다. 각자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 뒤 학위증을 받고 수령했다는 사인을 한

뒤 학과사무실을 벗어났다. 졸업식 학위수여식은 이같은 조촐한 모습으로 끝났다.

조선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학사학위 수여식과 학위복 대어를 전면 취소했다.

학위증서는 각 학과 사무실에서 개별 수령하도록 조치했다.

학위복을 입고 학사모를 쓰고 가족·지인들과 사진을 찍으며 학창생활을 마감하던 때처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학위증을 수령한 졸업생들은 기념사진도 없이 교정을 빠져 나갔다.

졸업생 김모씨(26)는 "학사모를 쓴 상태로 여자친구가 선물한 꽃다발을 들고 사진을 찍고 싶었다"며 "학위증도 개별 수령으로 여러 친구와 함께 행사를 치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모여 학위증서를 수령하기로 한 김모씨(27)는 "졸업식을 따로 하지 않아 조금 아쉽긴 하다"며 "친구들과 함께 학위증을 수령한 것에 의미를 두려 한다"고 말했다.

학교 내에서 꽃다발을 팔던 상인들도 울상이었다.

매출이 많이 나오던 졸업·입학 시즌이 왔음에도 지역 내 학교 졸업·입학식이 취소되면서 꽃다발 판매가 부진해졌다.

꽃다발을 팔던 한 상인은 "오전 내내 한 다발만 팔렸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해 너무 힘들다"고 한탄했다.

조인호 기자

## 신천지 광주 주일센터 CCTV

### 지난 6일 이후 촬영 내용 없어

#### "기계적 오류로 보여"

보건당국이 광주 남구의 신천지 학습관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해 경찰에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의뢰한 가운데 해당 CCTV에는 지난 6일 이후 촬영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24일 신천지 주일동 학습관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CCTV를 경찰에 제출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영상 분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해당 CCTV에는 지난 6일 이후 촬영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인위적으로 삭제한 내용은 아니고 기계적 오류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건당국은 CCTV 분석전문가, 경찰 등과 함께 신천지가 교회와 학습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남구 주일동, 월산동 학습관, 송하시온교회, 베드로지성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신천지 측이 주일동 학습관에서 확보한 CCTV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보건당국이 전문가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수거한 뒤 광주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정밀분석을 의뢰한 것이다.

월산동 학습관은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송하시온교회와 베드로지성전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예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교회에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다는 말에 대해 광주시는 "현재 사람이 있는 곳은 베드로성지와 송하시온교회, 광주역센터 등 3곳에서 1명씩 돌아가면서 건물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혀왔다"고 대답했다.

강아라 기자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062)943-0135 ~ 6  
FAX: 062)943-0134